

'17회 들불상'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이사장

여순사건 유해발굴·진실 규명 등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

(사)들불협사기념사업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제17회 수상자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영일(사진)님을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영일 이사장은 여순항쟁진실규명운동과 여수지역의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정착시켜온 지역운동의 대표적인 활동가이다.

여수·순천 사건은 그간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항쟁에 더불어 국가폭력으로 인해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이영일 이사장은 1997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설립했다.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의 여수·순천사건 실태를 밝혀내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유해발굴과 진실을 규명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여수·순천사건의 진실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유족들을 설득해 여수·순천사건 유족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제정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했다.

들불상은 지난 한해 동안 들불협사들의 삶과 정신에 부합하며, 민주·인권·평등·평화의 발전을 위해 현신하고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1000만원의 상금과 상품'을 수여함으로써 들불협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코자 만든 시상식이다.

올해 제17회 들불상 시상식은 5월 28일 오전 11시 5·18국립묘역 역사의문에서 들불협사합동주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용범 기자

포토뉴스



전남도 학생 교육원 '2022 전남 평화통일 힘찬 캠프' 전남도 학생 교육원은 2022 전남 평화통일 힘찬 캠프 함께 평화로! 통일로! 미래로!
•행사기간: 2022. 3. ~ 11. •주관: 전남도 학교 교육청 전남도 학교 교육청
•참가 학생들 30여명과 함께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여수·순천, 제주 일원의 여순1·19와 제주4·3 사건 관련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며 갈등과 분단, 회복과 미래의 의미를 되새긴다.
/박종배 기자



광양제철소, 지역 아이들의 소중한 꿈 응원 광양제철소 '좋은친구들 재능봉사단이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학습 도우미로 나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퇴근 후 태인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의 학습멘토이자, 친한 형·누나, 언니·오빠가 되어주고 있다. 아이들 맞춤형 커리큘럼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영어 교육을 제공한다.
/광양=조준익 기자



광주전남병무청, 1기관 1청 결구역 대청소 실시 광주전남병무청 '행복 더하기 봉사단'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7일 양립로 일대 골목길에서 대청소를 실시했다. 광주전남병무청은 작년 광주시 동구청과 1기관 1청 결구역 협약을 맺고 청사 주변 골목길대를 청결구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및 오물들을 수거하는 등 내 고장 환경을 가꾸는데 손을 보태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양교육청, 교육공동체 함께 만드는 '찾아라! 마을 놀이터'

광양찾아라! 마을 놀이터 활성화 운영 협의회

광양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2022 유·초 찾아라! 마을 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청 공원과, 아동친화도시과, 광양 학부모대표, 학부모 교육동아리 노라춤마, 유치원 교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 13일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광양지역 마을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공원을 소개한 '재미와 모험이 가득한 찾아라! 마을 놀이터' 리플릿 자료 활용 방안

18민주화운동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5·18의 숭고한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5·18 예술제 활동으로 영화제, 사생대회, 문예 창작활동 등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숭의중 교정 내 조성된 민주쉼터와 박창권 열사비 공원에서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학교 신문반 동아리' 연합으로 학생들의 주제 행사도 실시됐다.

박창권 열사는 중학생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첫 집단 발포한 5월 21일 당시 비상계엄령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그때 희생된 6명의 청소년 중 한 명이다.

숭의중은 학교에 조성된 5·18 민주화운동의 유적지를 설명해 주는 5월 이야기, 교정 내 조성된 민주쉼터와 박창권 열사비 공원, 사진 자료 전시 3곳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5·

/김도기 기자



간 운행 ▲아이들이 만드는 공원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양시, 학부모회, 유치원 교원이 공동 주관해 함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대 과기부 주관
'데이터 청년 캠퍼스' 선정



순천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사업' 운영대학에 선정됐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데이터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으로 '빅데이터 청년인재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순천대는 2024년 추진 예정인 순천시의 NHN엔터프라이즈의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광양시 오라클 4세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립에 맞춰 데이터 전문인력과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산학협력 교육센터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한 융·복합형 청년인재 양성을 목표로 순천농협, (주)한국공학기술연구원, (주)에스디테크, (주)대신정보통신, (주)사이버네트워크, (주)빛기암정보통신, (주)비온시 이노베이터 기업과 함께 신학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진남여중 '내고장 역사 바로 알기'

교육 3주체 함께하는 여순사건 내고장 역사 바로 알기



진남여자중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일요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천 프로그램으로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을 진행했다.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은 2021년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순사건의 벌원지인 여수에서 이를 기리면서 여순사건 대상지들을 전답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둘러보는 시티투어 코스이다.

이 프로그램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는데, 오동도 안

에 조성된 여순사건 기념관에서 관련 영상 시청 및 죽음을 맞게 되는 '손락총' 등의 해설을 시작으로 이순신광장, 서초등학교, 14연대 주둔지, 순원원 목사순교지, 형제묘, 위령비 등 여순사건의 현장을 해설과 더불어 둘러보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역사동아리 학생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여순사건의 배경 등 빼아픈 역사에 대한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여수=조일상 기자

황전면 외구교회, 여름이불 120채 기부

가정의 달 맞아 저소득층 가정에 여름이불 세트 지원



을 맞아 황전면 어르신 150 가구에 온열찌질기(500만원)를 지원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황전면 관계자는 "깨끗하고 시원한 여름이불로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주신 외구교회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구례중,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준우승

곽승현 개인전 금메달·엄태주 동메달 획득



구례중학교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중학생부 단체전 준우승, 개인전에서 곽승현 선수가 금메달, 엄태주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구례중 씨름 선수, 곽승현, 김민준, 엄태주, 한정훈, 정찬민, 고해성, 김지성, 주현호, 엄태강 등 9명이, 김호

용 부장과 이민호 감독과 함께 맹활약을 했다. 또한 구례교육지원청과 구례군체육회의 꼽임없는 지원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는 '지리산 구례씨름도 큰산이고, 구례중 씨름도 큰산이다'를 만들고 있다.

곽승현 선수는 "그동안 코로나19

로 대회가 없었다. 다행히 2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황전면 외구교회, 여름이불 120채 기부

가정의 달 맞아 저소득층 가정에 여름이불 세트 지원



을 맞아 황전면 어르신 150 가구에 온열찌질기(500만원)를 지원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황전면 관계자는 "깨끗하고 시원한 여름이불로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주신 외구교회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조준익 기자